

김성국

십일조 헌금을 교회에 바칠 마음 산 만큼 큰데  
어려운 시부모님 눈에 삼삼히 떠오른다는  
착한 며느리 집사님께  
여유있는 큰 딸이  
가난한 동생 도와주면  
친정 엄마는 자기가 용돈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돈 헐어  
주일학교 선생님들 식사대접해 주는 것 같은 교우께  
이번 달은 그것으로  
십일조 대신하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헌금함 옆에 놓인 십일조 봉투  
몇 장 되지 않아 보여  
박스에서 한 움큼 가져다  
수북히 쌓아 놓고 돌아설 때  
내 뒷머리는 화끈거렸습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런 마음가지고  
어느 세월에도 헌금모아  
교회당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음부터 안 그럴 겁니다  
정말 안 그럴 겁니다.

시간	KBS TV	TECH TV	MBC TV
6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7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8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30분
9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0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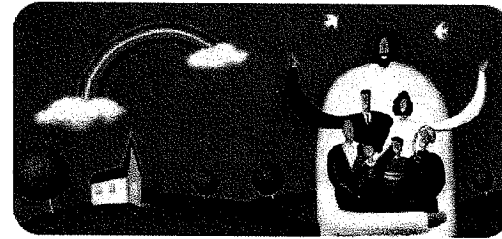
◀그리운 날의 흑백TV▶ TV 프로그램

TBC라는 방송국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문 한쪽에는 그날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새 소식처럼 자리잡고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주한미군방송인 AFKN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날의 하이라이트라면서 각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씩 내용을 정리하여 실린 내용까지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별당아씨” “사미안곡” “몬트리올을 올림픽 주요 경기” .... 친근한 어감으로 귀에 다가온 그 시절의 프로그램, 흩어져 있던 추억을 단정하게 정리해 놓은 듯합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8권 1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4월 2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 구어 드리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 잠언 19:17 >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후 유엔군과 국군이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당시 김일성 대학 의대의 부학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주말마다 신앙을 지킨 장기려 박사는 부상병을 마다할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군이 다시 쳐내려 오자 장기려는 남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자녀를 모두 북에 두고 단지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장기려의 눈에는 늙으신 부모님과 다섯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섰었습니다. 월남한 몸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없게 된 장기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한 길은 이곳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더욱 열심히 돌보는 일이다. 그러면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누군가를 통해 돌보실 것이다" 장기려의 그 굳은 믿음은 4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1983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 회의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그는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에 기쁨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아들은 약학박사, 둘째는 식품 공학사, 셋째는 의학박사, 넷째는 이론물리학박사, 막내는 교사로 각각 일하고 있었고, 80 이 넘는 아내도 아직 건강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어려운 나라에서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어리석은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화가가 안보이니 화가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보이니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아이들을 낳아 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 표에 형이서이기 어려움 받은 양으써서 드리기 바랍니다.)

## 주 립 예 배

영 관 송 Gloria  
 찬 회 와 소 립 을 위 한 기도 Confession Pray  
 동 서 의 선 언 Proclaim  
 찬 송 Hymn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교 회 수 시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기 도 Pray  
 찬 송 Scripture Reading  
 찬 가 대 찬 양 Choir  
 설 교 Sermon  
 찬 송 Hymn  
 찬 가 의 노래 '순례하는 나그네'  
 이 름 을 더 록 로 세 라' Offerng Pray  
 찬 송 Response Song  
 찬 송 Benediction

Calvary

다 란 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 에 게 는 복 은 증 처 함 이 없 는 나 라

36찬

다 란 이

13 (시 34편)

사 도 신 령

인 도 자

이 재 영 안 수 전 사

아 동 부

나 무 십 자 가 성 가 대

찬 송 곡 목 사

다 란 이

인 도 자

다 란 이

'이 름 을 더 록 로 세 라'

찬 송 곡 목 사

### ◆4월 예배위원 ◆

형자 기도	한근원	안내
26 이규원	차원주	<찬양> 찬가부
2 이재영	추미선	
9 장원웅	최원철	<말씀> 리상부
16 고대아	한상미	
23 김소영	한상부	
30 정희수	한상부	<말씀> 리상회

### ◆4월의 교회력 ◆

주일	예배와 모임
2	월주새벽기도회(1) 구약예배(7)
9	중려주일 고단주간새벽기도회 (10-15)
16	부활주일 성모요안나예배(14)
23	
30	이삭할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 매일 가족위해 5분
- 매일 교회위해 1분
- 매일 단음위해 1분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5 | 청년부: 토 오후 2시

꼭 열면 새벽공기에 서늘함이 배어있습니다. 고향 아니라도 가솔이 있는 길목에는  
 여름에 축성한 열매들로 정려합니다. 4월1 목련, 베르테르의 편지, 4.19, 부활절, 이  
 편 언 어 들 모 인 해 원 지 고 령 하 고 경 건 미 가 느 켜 지 는 람 임 니 다.

1. 교우소식

<퇴원> 김소연 권사(백제성, 장유진 전사), 부활절이 오면 맨 앞에 앉으신  
 모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금주는 "정기구역예배" 주간입니다 <요요일 저녁 7:30>

\*4구역 재편성: 김진근(5구역), 김형재(6구역), 김영철(8구역), 김광영(2구역)

3. 다음주일은 『중려주일』과 함께 고단주간입니다

\*산자가 축음을 받음 주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4. 고단주간 새벽기도회(예고). <일시> 10일(월)-15일(토) 새벽 5:55분

5. 학생부 수련회 주일자원봉사요청 <문의>: 이기중, 공주야 전사

\*일시> 4월 17일(정산, 저녁), 18일(정산, 저녁), 19일(정산)

\*5번의 식사 중 한번 봉사담당(매 식사마다 5명의 봉사자)

6. 제5년선교회 모임 <일시> 오는(2일) 저녁 7시 ☎410-7368

<장소> 서재오 전사 자택, 70A Braemar Rd. Castor Bay

### ▶작한 시인▶

아름도 우는 날이 있는데  
 름 응 곤

말사다

참프면 참된 믿음

아프면 아픈 믿음

힘들면 힘든 믿음 말사다

아름도 우는 날이 있는데

바다도 폭풍이 부는 날이 있는데

어떻게 기쁜 일만 생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사다

참프면 참물이 다하도록

아프면 아물이 다하도록

힘들면 괴물들이 다하도록

말사다.....

바람이 잉잉거리며 무척계룡  
 먼 지단 주일밤, 문 열고 나가  
 관 차림입지 않은 찬에 혀드  
 레 신발 신은 채 떠밀려 세상  
 구석구석 떠돌다 돌아오는 바  
 람 이 고 싶 었 습 니 다.  
 료 복 에 얹 아 우 는 강 아 지, 왜  
 겨 가 는 공 원 벤 치 의 노 인, 자  
 식 위 해 예 배 당 에 무 풀 쫓 은  
 아 피 지 들 을 만 나 면 그 들 과 따  
 뜻 한 방 에 들 어 가 환 자 자 고  
 일 이 나 우 리 다 시 힘 내 자 고  
 얘 기 하 다 들 아 오 고 싶 었 습 니  
 다.  
 바 람 이 부 는 밤 에 는 나 도 바  
 람 이 됩 니 다. 하 늘 도 용 기 에  
 나 도 마 람 처 럼 용 다 고 부 르 리  
 위 한 이 유 가 없 습 니 다.